

지역사회 자립...주거유지서비스 발전 방향 모색

실로암사람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과공유회 진행
“우리집”과 같은 사업 지속적으로 추진 더욱 확대를”

(사)실로암사람들(대표 김용목)은 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함께 컨소시엄을 통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부터 탈시설자립장애인 지원주거형주택 ‘우리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년간 추진해 온 사업의 운영 성과를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장애인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주거유지서비스의 필요성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성과공유회를 지난 5일 오후 2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광주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성황리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순화 시의원과 문예준 시의원을 비롯해 장애인복지 분야 유관기관·단체장, 관계 공무원, 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순화 시의원은 “지원주거형주택 ‘우리집’ 사업이 더욱 확대돼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구성원과 함께 어울리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체계가 지속적으로 확충되기를 기대한다”며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예준 시의원은 “전남지역에는 이와 같은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점이 아쉽다”며 “지원주거형주택 ‘우리집’과 같은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더욱 확대돼 보다 많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특히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제1·2차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5개년 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며, 타 시·도보다 앞서 체험홈(자립생활주택)과 탈시설자립장애인입대주택지원사업을 운영하는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기반을 선도적으로 구축해 왔다. 또한 자립 이후에도 안정적인 지역사회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탈시설자립장애인지원주거형주택 ‘우리집’을 운영하고 주거유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탈시설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국적으로도 보기 드문 선도적 정책모델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이런 정책의 추진 과정과 3년간의 운영 성과를 지역사회와 함께 공유하고,



(사)실로암사람들(대표 김용목)은 최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광주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함께 장애인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주거유지서비스의 필요성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성과공유회를 진행했다. 사진은 성과공유회에 참가한 (사)실로암 사람들 멤버.

장애인이 자신의 집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주거유지서비스의 중요성과 제도와 필요성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현재 지원주거형주택 ‘우리집’은 지원주거 12명, 주거유지서비스 1명, 이용 대기자 7명 등 총 20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사업 성과보고와 함께 이용인의 자립생활 경험 발표와 전문가 주제발표를 통해 지역사회 자립의 의미를 되새기고, 지속가능한 주거유지서비스

체계 구축과 향후 정책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지원주거형주택 ‘우리집’은 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이 아니라 장애인이 자신의 집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유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용인의 장애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사례관리, 지역사회 자원 연계, 건강관리, 자립역량강화 교육, 자조모임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자립생활 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며, 지난 3년간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과 삶의 질 향상에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실로암사람들 관계자는 “장애인의 자립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지원 속에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함께 안정적인 주거유지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자립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지속가능한 자립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채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콘진원·현대백화점, 중소 K-패션 해외 진출 돕는다

도쿄·파리 등 해외 유통망 확대
민관 협력바탕...체계 구축 계획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현대백화점이 국내 중소패션 디자이너 브랜드의 해외 판로 확대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콘진원은 최근 서울 CKL기업지원센터에서 현대백화점과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 해외 진출 활성화 및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영수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김윤지 콘진원 원장, 정지영 현대백화점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우수한 제품과 디자인 역량을 갖추고도 해외 유통망과 현지 사업 경험이 부족해 시장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중소패션 브랜드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도쿄와 파리 등 주요 해외 시장에서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의 유통과 판로를 확대하고,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K-패션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최근 서울 CKL기업지원센터에서 현대백화점과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 해외 진출 활성화 및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콘진원은 참가 브랜드 선정과 마케팅·홍보를 담당한다.

현대백화점은 해외 유통망과 현지 매장 운영 경험을 활용해 사업 전반을 운영한다.

구체적으로 우수 디자이너 브랜드 발굴을 비롯해 해외 팝업스토어 운영, 상품화 및 물류, 현지 홍보와 판매 지원 등 브랜드의 글로벌 사업화 전 과

정에서 협력한다. 첫 번째 협력사업은 일본 도쿄에서 운영하는 팝업스토어다.

콘진원은 참가 브랜드별 특성과 현지 소비층을 고려한 맞춤형 홍보를 지원하고, 현대백화점은 도쿄 시부야 파르코 백화점 내 ‘더현대’ 매장을 중심으로 현지 유통망과 매장 운영체계를 제공한다.

1차 참여 브랜드는 베르소와 에스이오, 리이, 노앙, 야세 등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 5개사다. 이달 중 2차 참여 브랜드를 추가로 모집해 모두 11개 브랜드를 지원할 예정이다.

팝업스토어는 다음달 25일 신발 브랜드 ‘야세’를 시작으로 내년 4월까지 시부야 파르코 백화점 4층 더현대 매장에서 브랜드별로 순차 운영된다.

참가 브랜드는 팝업스토어를 통해 일본 소비자들과 직접 만나 제품 경쟁력과 시장성을 확인하고, 현지 인지도도를 높이면서 해외 판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 기관은 도쿄 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향후 파리 등 주요 해외 거점으로 협력사업을 확대하고, 국내 패션 브랜드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민관 협력 모델을 지속해서 발전시킬 방침이다.

조현진 기자 pose007@gwangnam.co.kr



한빛원전 환경·안전감시센터는 이나영 신임 소장 취임식을 진행했다. 사진제공=한빛원전 환경·안전감시센터

이나영 한빛원전 환경·안전감시센터 소장 취임

원전 안전 전문가...과학 기반 감시체계 고도화 추진

한빛원전 환경·안전감시센터는 이나영 신임 소장이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1일 취임한 이 소장은 원자력공학 박사로, 1999년 감시센터에 입사한 이후 기술팀장과 고창분소장 등을 역임하며 27년간 원전 주변 환경방사능 조사·분석과 발전소 안전감시 등 원전 안전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왔다.

이 소장은 취임과 함께 과학적 전문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감시센터를 지역사회가 신뢰하는 원전 환경·안전 전문기관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과학 기반 방사능 감시체계 고도화 △지역 중심의 선제적 원전 안전 기술 대응 △현장 중심 방사능방재 기술지원체계 강화 △지역사회와의 소통·협력 확대 △신뢰와 소

통 중심의 조직문화 조성 등 5대 핵심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또 환경방사능 감시와 기술검증의 전문성을 높이고, 감시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원전 관련 기관·단체와 주요 안전 현안을 공유하며 지역과 함께하는 원전 안전감시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이나영 소장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기술검증과 선제적인 원전 안전 대응을 통해 지역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 기반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받는 원전 환경·안전 감시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정규필 기자 ykjp98@gwangnam.co.kr

광주특별시 동부소방, 수난인명구조 대응능력 강화

안전장비 착용 실습·장비조작 훈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부소방이 여름철 수난사고에 대비해 현장대원의 신속하고 정확한 인명구조 능력 강화를 위한 수난 인명구조 훈련·드로우백 활용능력 강화에 나섰다.

이번 훈련은 현장대원 133명으로 여름철 증가하는 익수사고 등 수난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내용은 시정각 자료를 통한 수난구조 기본 이론과 표준작전절차(SOP 313) 이해, 드로우백 및 구명부한 등 수난구조장비 사용법 숙달, 개인안전장비 착용 실습과 장비조작 훈련으로 진행됐다.

교육 이후에는 드로우백 투척 평가를 실시해 실제 구조 상황에서 요구되는 장비 운용 능력과 투척 정확도를 점검했다. 평가는 정해진 거리에서 드로우백을 투척해 목표지점까지의 정확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실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반영한 판정 기준을 적용해 개인별 속



광주특별시 동부소방서가 현장대원의 신속하고 정확한 인명구조 능력 강화를 위한 수난 인명구조 훈련 및 드로우백 평가를 실시했다. 사진제공=광주특별시 동부소방서

련도를 평가했다.

김영일 동부소방서장은 “수난사고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반복적인 교육과 실전형 훈련을 통해 현장대원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있다”며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언제든지 신속하고 안전한 구조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



장성, 평생학습센터 3곳 추가 지정
총 14곳...배움 사각지대 해소

전남광주통합특시 장성군이 지난 7일 장성미식산업진흥원, 청년센터 아움, 장성군 청소년수련관 3곳을 평생학습센터로 추가 지정했다.

평생학습센터는 주민 생활공간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평생학습 거점이다. 이번 신규 지정으로, 평생학습센터는 총 14곳으로 늘었다.

센터의 궁극적인 목표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쟁력 강화에 있다. △지역 특성과 교육 △직업능력 및 역량개발 교육 △인문·문화·예술 프로그램 △노인·청년·청소년 맞춤형교육 등 총 485곳에서 674개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

김한중 군수는 “평생학습센터가 배움이 일상이 되는 평생학습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군민 누구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평생학습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성·이항범 기자 ihb6699@gwangnam.co.kr



광주 북부경찰은 ‘2026년 상반기 빛고를 피싱범죄 예방 우수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신한은행 첨단금융센터에 인증패와 감사장을 전달했다. 사진제공=광주 북부경찰서

광주 북부서, 피싱범죄 예방 금융기관 인증패 전달

신안신탁·신한은행 직원 기지로 7000만원 피해 막아

광주 북부경찰은 ‘2026년 상반기 빛고를 피싱범죄 예방 우수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신안신탁 비엔날레지점과 신한은행 첨단금융센터를 방문해 인증패와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신안신탁 비엔날레지점 직원 A씨는 정기에금을 중도 해지하려는 고객이 자금 사용 목적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점을 수상히 여겼다.

이후 고객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금융감독원과 112를 사칭한 메시지와 모델에 스스로를 가둔 상태라는 내용을 확인하고 즉시 112에 신고해 2000만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았다.

신한은행 첨단금융센터 직원 B씨도 보험을 중도 해지하려는 고객이 “아들 결혼자금”이라고 설명했지만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점을 이상하게 여겼다. 확인 결과 ‘아들’로 저장된 연락처가 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등록된 번호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해 5000만원의 피해를 예방했다.

광주경찰청은 공로를 인정해 올해 상반기 ‘빛고를 피싱범죄 예방 우수 금융기관’ 4곳을 선정했으며, 이 가운데 2곳은 광주 북부경찰서 관내 금융기관이다. 지난해 상반기 선정된 4곳 가운데서도 2곳이 북부서 관내 금융기관이었다. 임영진 기자